

월간 자동차·모빌리티 정책 동향

Monthly Policy Trend in Car and Mobility



이재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Jaekyu Lee
Bae, Kim and Lee LLC



K-UAM, 핵심 기술개발(R&D)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의 본격 상용화 시점인 성장기(2030년 이후)를 대비하여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총 1,007억원(국비 803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국토부가 주관하고 기상청이 참여하는 본 사업은 현 정부 10대 국가 전략기술 프로젝트에 선정된 바 있으며(2023. 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신속조사를 통과한 첫 번째 사례이다(2023. 8.).

한편, 본 사업은 ① 항행·교통관리 기술, ② 버티포트 운

용·지원 기술, ③ 안전인증 기술 등 3개 전략 분야 총 7개 연구개발과제로 관련 산·학·연 약 33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① 항행·교통관리 기술 분야는 UAM 안전운행 지원을 위한 운항정보 획득 기술 개발, UAM 항로 실시간·자동화 설계 기술 확보 및 교통관리 기술 고도화, 도심 저고도 기상관측·예측기술 확보 등 4개 과제로 구성된다. ② 버티포트 운용·지원 기술 분야는 UAM 안전운용을 위한 이동식 모듈형 버티포트 설계·시작품 제작, 버티포트 통합 운용·지원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 등 2개 과제로 구성된다. ③ 안전인증 기술 분야는 UAM의 도심운용 환경을 충족하기 위한 항공기

인증기술기준을 개발하며, 국내 UAM 상용화의 직접적인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와 기상청은 국토부 산하 R&D 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내 'UAM 국가전략기술 사업단'을 구성하였으며, 사업단은 본 사업을 총괄 기획·관리하고, UAM 관련 산·학·연·관 정책협의체인 UTK(UAM Team Korea)와 연계·협력으로 UAM 기술·시장·정책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조속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대한민국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DEPA') 가입이 지난 5월 3일자로 공식 발효되어, 대한민국은 DEPA의 제1호 추가 가입국이 되었다. DEPA는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으로서, 지난 2021년 1월에 발효된 바 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현재 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UAE 등 4개국이 DEPA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페루, 엘살바도르가 가입 의사를 표명하여 동북아·북미·중남미·중동지역까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번 DEPA 가입을 계기로 우리 기업이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DEPA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혜택 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LG U+ 및 카카오모빌리티의 회사설립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이하 'LG U+') 및 주식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 Charge Point Operator, 이하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합작회사 설립건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여 기업결합을 승인하였다.

본건 기업결합은 신규 회사설립 건임에도 LG U+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시장의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LG U+ 및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관련 분야와 택시, 주차 등 모빌리티 인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참고로, LG U+는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데, LG U+는 현재 자신이 영위하는 충전 사업을 이번 기업결합의 결과로 신설되는 합작회사에게 양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 택시,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이고,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는 낮다고 판단한 근거 중 하나로 낮은 시장 점유율을 제시하였다. 이번 기업결합을 통하여 신설되는 회사는 LG U+의 충전 사업을 이관받아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데, 2023년 7월 기준 LG U+의 시장 점유율이 1.1%에 불과하였고, EV 충전 플랫폼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점유율은 2023년 12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를 기준으로 할 경우 36.22%이지만, 중개 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15.72%로 높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에 다양한 경쟁사업자들이 존재하여 경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았다.

충전 시장의 경우 기업집단 「지에스」 및 기업집단 「에스케이」가 각각 1위·4위 사업자에 해당하여 LG U+와의 점유율

월간 자동차·모빌리티 정책 동향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양사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어 아파트 중심의 충전소 공급에 유리한 상황이고, 현대자동차·테슬라코리아의 경우에도 직접 충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새로운 전기차 충전 방식을 연구·개발하는 등 전기차 제조사로서 전기차 충전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도 티맵모빌리티 등의 유력 경쟁사가 존재한다. 중개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간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고, 차량 소유비율이 낮은 20~30대에서는 카카오톡의 이용빈도가 티맵보다 높은 반면, 차량 소유비율이 높은 40~60대 이상에서는 티맵의 이용빈도가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카오너(Car Owner) 서비스 분야에서는 티맵모빌리티가 강력한 경쟁자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네이버 역시 네이버 지도를 통해 충전소 검색 및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어 향후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충전소 예약 및 충전실 패·출차 알림 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상황이며,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네이버가 경쟁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당사회사가 충전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혁신 서비스 출시 경쟁 및 가격경쟁을 보다 촉진할 것이고, 이를 통해 높은 충전기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충전기 고장 및 관리부실 등으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한편, 가격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충전요금이 인하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의 경쟁이 보다 촉진되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되어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 시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규 변호사 : jaekyu.lee@bkl.co.kr

SCOPUS 등재학술지

한국자동차공학회 국문논문집

서연학술상,
KAIDA학술상



우리학회는 자동차산업의 기술력 향상에 직접 기여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자동차공학 전문논문집인 한국자동차공학회 국문논문집(SCOPUS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그 노력의 공헌에 대하여 학술상을 포상하고 있습니다.

국문논문집에 회원 여러분들의 우수한 연구결과를 적극 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국문논문집에 게재된 우수논문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인원	서연학술상 3명(학계/연구계 1명, 산업계 1명, 대학원생 1명) KAIDA학술상 1명
시상내용	상패 및 상금
문의처	한국자동차공학회 편집팀 (02-564-3971, manage@ksae.org)